

EXHIBITION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FONDATIONDENTREPRISEHERMES.ORG

OUR GESTURES DEFINE US AND SHOW WHO WE ARE

25 MARCH-5 JUNE, 2022

로르 프루보

2022.3.25
- 6.5

심층 여행사

LAURE PROUVOST

DEEP TRAVEL INK.

ATELIER
HERMÈS

CREATE

오직 기발한 이야기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안소연

“만약 트러블로 가득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이 오염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그런 쏟아냄을 우리의 지식 실천의 일부로 받아들일 때가 됐다”

— 애나 칭¹

동시대 미술가들 가운데서 가장 흥미로운 작가의 한 사람으로 주목받는 로르 프루보는 이질적인 이미지와 오브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유의 억양으로 구현된 보이스오버와 문법에서 자유로운 텍스트로 동시대의 삶과 예술이 직면한 여러 난국을 창의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진보와 퇴행이 뒤섞이고 미래와 과거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동시대에 대해 그녀의 작업은 수많은 장소와 시간, 수많은 의미와 문제를 엮어 지은 기발한 스토리텔링으로 여러 갈래의 우회적인 비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개념미술로 귀결되는 모더니즘 미술사의 가부장주의와 그 이면에서 존재조차 없이 사라져버린 여성들의 역할을 되돌아보는가 하면 정상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 이성적인 것 바깥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리고 오류로 얼룩진 언어와 무의식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더 나아가 앞으로 펼쳐질 가상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 감각으로 포섭할지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는 것이다.

로르 프루보의 이야기 짓기는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로 자신의 직계 가족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에서는 물론이고 인터뷰에서도 주저없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작가는 사실과 허구가 구별되지 않는 지점에 서사를 위치시킨다. 인생의 대부분을 모국어(불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살며² 철자 실수나 번역의 오류를 겪어 온 작가는 이 경험을 이민자들의 언어가 순수한 규칙의 세계를 오염시키면서도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창의적인 오류의 장치로 활용한다. 금지된 장소를 무단침입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이 행위는 사회의 규정된 코드를 위반하고 틈을 벌려 불완전함과 트러블이 공존할 수 있는 확장된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인 것이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이 세계로의 초대는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작가 본인의 유혹적이고 선동적인 목소리로 제안되며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는 작가의 주문과 속삭임에 이끌려 우리는 불분명하지만 심오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전시에서 아틀리에 에르메스에는 아저씨의 여행사 가맹점, 심층 여행사 Uncle's Travel Agency Franchise, Deep Travel Ink.라는 작은 여행사 사무실이 차려졌다. '심층'이라는 모호한 목적지를 내세우고 '주식회사 Inc.'를 발음되는 대로 적어 놓은 어딘지 허술해 보이는 여행사이다. 작가에 의하면,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세계 곳곳에 가맹점을 세우겠다고 큰소리치던 자신의 아저씨의 못 말리는 사업확장 계획이 실현된 것으로 2016년 프랑크푸르트에 첫 지점을 낸 이후 마이애미, 뉴욕에 이은 네번째 가맹점이라고 한다. 사무실은 높이 120cm 폭 80cm에 불과한 작은 문을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데, 허리를 숙이는 수행적인 행위를 통해 우리는 이미 다른 공간에, 목적지의 중간 기착지 즈음에 당도한

ONLY THE INGENIOUS STORYTELLING STILL CAN SAVE US

AHN SOYEON

“If a rush of troubled stories is the best way to tell about contaminated diversity, then it's time to make that rush part of our knowledge practices.”

— Anna Lowenhaupt Tsing¹

Acclaimed a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gures in contemporary art today, Laure Prouvost undertakes a complexly innovative practice that interlaces disparate images and objects and composes unique texts that break free from grammar, which are often spoken through her voiceovers in a distinctive accent. These characteristics of her work altogether appear to be gestures seeking to overcome the crisis in contemporary art and life. Addressing the contemporary era in which progress and regression and past and future appear to be jumbled up, Prouvost's work presents ingenious storytelling that intertwines countless different times and places with countless different meanings and problems, to evoke multifarious criticism and new alternatives. Her borderless subjects include the male-dominated modernist art history that leads to conceptual art, the invisible existence of women in that history, and the worlds outside our normality, legality, and rationality, such as the unconscious and the world of language. She also touches upon the issues of the virtual worlds unfolding in our present and future, proposing how we might embrace them with our real senses.

Prouvost creates and tells stories about her immediate family members, rather than tales of a faraway land. By outspokenly telling personal stories of and about her family in her works as well as during interviews, the artist positions her narrative in an interstice between facts and fiction. Having spent most of her life in regions where her native language(French) is not spoken², Prouvost is familiar with spelling mistakes and translation errors, and employs that experience for her creative practice. Just as the languages of immigrants enrich the culture, she embraces errors and mistranslations for creativity and critique. Often referred to as a “trespassing” into forbidden territories, her practice contains a will to violate society's stipulated codes of conduct, to open up gaps to advance into an expanded world where imperfections and troubles coexist. She often invites us to an unknown world with her seductive and enticing voiceover that guides us through the journey. We may be hesitated to take the first step, but her constant encouragements in a whispery voice captivate us to embark on a journey toward an obscure

느낌을 갖게 된다.

사무실의 대기 공간에는 신선한 산딸기와 할머니의 레시피에 따라 진이 첨가된 차가 마련되어 있다. 여행을 홍보하는 이국적인 포스터들과 잡지들, 그리고 여행사의 전문성을 과시하는 관련 서적들과 달리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위아래가 뒤집힌 지도는 작가의 작업 전반에 배치된 유머 코드를 암시한다. 여행 정보광고(2016)는 심층여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작가가 아저씨에게 만들어 준 비디오 클립으로서 황홀한 휴식과 낭만적인 파라다이스의 장면들을 책장을 넘기듯 정성껏 소개한다. 비록 철자가 틀렸지만 ‘좀 더 깊은 곳으로 데려 갈게요 WE WILL TAKE YOU A BEET DEAPER’라거나 ‘우리와 함께 떠나요 Escape with us’라고 속삭이는 작가의 목소리는 거의 귀에 닿을 듯 촉각적이다. 목소리와 조금씩 뉘앙스가 어긋나는 자막으로는 여행의 목적지가 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무의식의 숨겨진 장소 THE HIDDEN PLACE OF YOUR SUBCONSCIOUS’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비디오 내용에 부응하듯 신비로운 그림과 메시지가 사무 가구들의 아랫면에 감춰져 있고 그 숨은 의미를 탐사하기 위해 벽에 걸린 거울 지팡이가 사용된다. 푸른 색 물이 담긴 수조와 파티션 너머의 황금빛 조명은 조금 전 영상에서 보았던 문어가 헤엄치던 심해와 석양을 바로 상기시킨다.

여행사의 명칭은 물론 사무실 곳곳에 배치된 예사롭지 않은 장치들은 로르 프루보의 작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모티브들이다. 예를 들어 ‘심층 여행’은 무의식 세계로의 여행이면서 동시에 작가의 (가상의) 할아버지가 감행했던 지하 여행을 소환한다. 프랑스 작가로는 최초로 터너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작품 원티 Wantee(2013)에서 프루보는 개념미술가였던 할아버지가 평생의 역작으로 영국 북부의 작업실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지하 땅굴을 파다가 끝내 실종된 이야기를 들려준 바 있다. 남성 모더니스트의 무모한 영웅주의를 드러내는 이 일화에서 할아버지가 예로틱한 이미지로 유명한 화가 프라고나르 풍으로 거실을 꾸몄던 아이러니도 함께 전한다. 여자 가슴과 엉덩이에 대한 애착은 여행사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다.

더불어 2차 세계대전을 피해 영국으로 도피한 시기에 할아버지와 가깝게 교류했다는 현대미술의 선지자 쿠르트 슈비터스의 이야기도 풀어낸다.³ 그가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수리해준 테이블이나 의자 다리가 메르츠바우의 잔재라거나 (현재 여행사에서 사용 중이다.) 그 시기의 동반자였던 에디트 토머스를 ‘원티’라는 별명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다. 차 대접이 몸에 뻐 여자 친구가 수시로 “두 유 원 티 Do you want tea?”라고 물어보던 행동을 낫추어 부르던 습관인 것이다. 이 일화는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불공평한 사회적 역할과 위대한 예술가조차 피할 수 없었던 내재화된 가부장적인 시선을 지적한다. 또한 언어유희 속에서 영국의 오랜 차문화와 식민지 역사 등을 종종적으로 배치해 둔다. 로르 프루보는 자신의 작업에서 관람객들은 물론 이민자들을 환대하는 포용적인 제스처로 할머니의 차를 대접하곤 한다.

할아버지 실종 후 그녀의 할머니는 잠재된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꽃피운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남성 예술가에 가려져 존재조차 미미했던 여성 예술가들을 재조명하고 여전히 소력자로서 현신하는 그녀들의 노고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할머니는 사라진 할아버지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일념으로 방문자 센터 Visitor Center(2014)를 구상하고 자신이 만든 각종 세라믹 조각과 찻잔들을 모금활동을 위해 판매하는데, 손녀인 작가의 도움을 받아 구축한 모금활동 사이트는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다. (<http://www.laureprouvost.com/menu2.html>) 위대한 대지미술을 하겠다는 비현실적인 계획만 남긴 채 사라져버린 남편 대신 아내는 실질적인 작품활동으로 남편을 기념한다. 일종의 ‘아트 브뤼(Art Brut)’로서 독학으로 일군 할머니의 매력적인 작품세계는 동물 조각들과 촛대,

but profound destination.

Prouvost’s solo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is staged like a small travel agency called Uncle’s Travel Agency Franchise, Deep Travel Ink. It is explicitly a clumsy travel agency, with the name containing a misspelling (of the abbreviation “Inc.”) and professing an ambiguous destination (“deep travel”). According to the artist, the travel agency belongs to her uncle, who used to brag his business plan to have his travel agency’s franchises all over the world at the family’s Christmas gatherings for years. Since opening its first branch in Frankfurt in 2016, the travel agency extended to Miami and New York, and hence this office set up at Atelier Hermès is the fourth franchise. To enter the office space, the visitors must bend their heads and backs to walk through a small door that is only 120cm high and 80cm wide. By physically performing this action, we get a feeling that we are really entering a different world, perhaps a midway to the final destination.

Inside the office, there is a waiting area prepared with fresh raspberries and tea with gin, following the artist’s grandmother’s recipe. On the wall is a map posted upside down, an example of the ample codes of humor that the artist presents for the audience to decipher. No exotic posters or travel publications, which would be typically found in usual travel agencies, can be found here. Travel Informercial(2016) is a video which Prouvost professes to have made for her uncle, featuring carefully selected scenes of luxurious vacations and romantic paradises. The promotional slogans such as “WE WILL TAKE YOU A BEET DEAPER” (yes, with the misspelling) and the artist’s voice whispering “Escape with us” are so tactile that they almost reach our ears. The subtitles, which are slightly off-nuance translations of the voiceovers, eventually inform us that the destination of this trip does not actually exist, and that we are ultimately heading to “THE HIDDEN PLACE OF YOUR SUBCONSCIOUS.” In the similar vein, mysterious pictures and messages are hidden on the underside of office furniture, and a mirror wand hung on the wall is meant to be used for exploring the hidden meanings. A tank filled with blue water and a golden lighting beyond a partition wall recall the images of deep sea and sunset in the video.

The unusual objects as well as the name of the travel agency are key motifs that appear repeatedly in the work of Prouvost. For example, “Deep Travel” refers to a journey into the unconscious, and at the same time summons the (purported) underground exploration undertaken by Prouvost’s (fictional) grandfather. In Wantee(2013), a work with which she won the Turner Prize (as the first French-born artist to win the British art prize), Prouvost told a story of her grandfather, a conceptual artist whose lifelong masterpiece was to dig an underground tunnel from his studio in northern England to Africa, where he went missing. Prouvost’s story is an implicit dig at a male modernist’s reckless heroism, and contains an anecdote that her grandfather decorated his living room in the style of Fragonard, a painter famous for his erotic images. Prouvost’s fascination with women’s breasts and buttocks is suggested throughout the travel agency office.

차도구의 형태로 여행사에서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

여행의 안내자와도 같이 사무실의 구석구석에 흔적을 남긴 문어는 로르 프루보의 반려종(companion species) 중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가가 가장 중요시하는 감각인 촉각과 운동감을 담당하는 이 존재를 작가는 ‘많은 것을 동시에 만지고 생각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⁵이라며 애착을 가지고 관찰해오기 때문이다. 평론가들로부터 지구의 환경 문제와 지역문화를 반영한 수작으로 평가받은 2019년 베니스비엔날레 프랑스관의 작품 당신을 에워싼 깊고 푸른 바다 Deep Blue Sea Surrounding You에서 문어는 마침내 서사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그 몸은 우주의 공간이자 무의식의 공간처럼 물리적으로 관객에게 개방되기에 이른다. 작가는 12명의 인물들과 함께 로드 트립에 올라 ‘심층 여행’을 실천하면서 문어의 촉수처럼 확장된 감각에 의지해서 공간적, 시간적 터널을 관통하는 경험을 한다.

여행사 사무실 한 칸의 책상에서는 로르 프루보의 첫 장편 영화 방랑자의 일곱 시퀀스 중 다섯 번째인 벵커/통신 시퀀스(2012)가 상영된다. 방랑자는 언어의 오역이 의미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본 작업으로 아티스트 로이 맥베스(Roy Macbeth)의 작품 프란츠 카프카의 방랑자 The Wanderer by Franz Kafka(2010)를 기반으로 한다. 독일어를 읽지 못하는 맥베스는 사전이나 인터넷의 도움 없이 카프카의 변신 The Metamorphosis(1915)을 임의대로 번역하여 원전에서 주인공의 이름만 차용했을 뿐, 내용은 전혀 생소한 그레고르와 베티의 이야기로 전환한 바 있다. 로르 프루보는 이 텍스트를 느슨한 일개삽아 소통의 불완전성을 극단적으로 가시화하고자 했다.

‘심층 여행’의 공간 이동 문법인 양 카메라가 미장원 바닥의 지하 창고로 내려간 순간부터 장면은 위아래가 뒤집어진 지하 벵커로 이어지며 타임 워프 또한 발생한다. 시간은 냉전시대로 회귀한 듯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경직되고 권위적인 태도로 공간을 지배하면서 주요 인사인지 위함 분자인지 불분명한 그레고르의 위치를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러나 소통의 도구인 전화벨만 과도하게 울릴 뿐, 구성원 간의 대화는 물론, 과거(벵커)와 현재(외부) 사이의 제대로 된 소통은 불가능하다.

여행사 사무실에서 이어진 극장에서는 대형화면으로 신앙적으로 돈 버는 방법(2014)이 상영된다. 작가의 영상 제작 방식인 보이스오버와 텍스트가 겹쳐진 중층적인 스토리텔링이 풍부하고도 촉각적인 이미지나 강렬한 사운드와 어우러진 가운데 빠른 편집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편집의 속도는 자막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서 조금 전에 무엇이 지나갔는지 기억하기조차 힘겨운데, 작가의 목소리와 텍스트는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자주 명령을 내린다. 그것은 마치 TV 광고가 부지불식 중에 우리의 무의식에 상풍을 각인하려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보이스오버와 텍스트는 시청자인 우리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말을 걸고 세뇌시키면서 우리를 명령을 수행하는 영상의 주인공으로 참여시킨다.

시작 시퀀스에서부터 유혹적인 목소리는 ‘이 영상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욕망을 자극하는 솔깃한 제안에 쉽게 이야기에 몰입하면서도 한편으로 범죄에 연루된 듯한 불안감에 빠져드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동하는 목소리와 조금씩 어긋나는 굵은 글씨체의 문장들이 이야기를 분열시켜 점차 신뢰감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몽타주된 이질적인 이미지들과 극적인 사운드는 심리적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다. 관객은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의 도피자 신세가 된 것처럼 누군가에게 쫓기면서 명령에 따라 런던의 골목길로, 이탈리아 남부로 긴 여정에 참여해야만 한다. 태양이 작열하는 조세 피난처까지 흘러 들어온 우리는 마침내 돈의 세례를 받고 목적을 달성한다. 돈은 파우스트 박사의 거래처럼 쾌락과 명예,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조종당하고 중독되며 폭력에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도 한다. 헐리웃 영화의 시각적 쾌락과 욕망을 충실히 모사한 영상의

Prouvost’s story also features the pioneering artist Kurt Schwitters, who she claims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her grandfather while he stayed in England to escape the World War II.³ According to Prouvost, Schwitters repaired her grandfather’s table and chair, which are currently in use in the travel agency. The title of this story, “Wantee,” was a derogatory nickname Schwitters gave to his then partner Edith Thomas, because she would frequently ask “Do you want tea?” as if serving tea had become her habit. As such, this anecdote points at the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the internalized patriarchal gaze that even great male artist could not avoid. Also, using a wordplay, it engages with the English tea culture and colonial history as well. Prouvost’s work often shows warm gestures of hospitality for immigrant communities and her audiences, offering them her grandmother’s tea.

According to Prouvost, after her grandfather’s disappearance, her grandmother’s latent talent as an artist blossomed. This story aims to shed light on female artists, who have historically been overshadowed by male artists, and to point out the continuing status of female artists as facilitators. It is said that the grandmother envisioned building a Visiting Center(2014) to commemorate the artistic achievements of her disappeared husband. To raise funds for the construction, the grandmother sells ceramic sculptures and teacups that she makes. The fundraising site, created with the help of Laure Prouvost, is still in operation to this day (<http://www.laureprouvost.com/menu2.html>). While the husband left behind only an unfeasible plan to make a Land Art masterpiece, the wife commemorates the missing husband through practical art activities. The self-taught female artist has been developing a very charming style of work that reminisces Art Brut. The grandmother’s pieces such as animal figurines, candlesticks, and tea equipment are on display at the travel agency.

An octopus’s presence is so ubiquitous in the office as well as in Prouvost’s practice in general, that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e octopus is the artist’s “companion species.”⁴ The octopus represents an embodiment of tactility and movement, the senses that the artist regards most highly. With fascination and curiosity, Prouvost observes that “The octopus is the oldest mind or brain of this planet. With her arms, she’s touching and thinking many things at one time.”⁵ In the work titled Deep Blue Sea Surrounding You, presented at the French Pavilion of the 2019 Venice Biennale and praised for its exceptional treatment of environmental issues and local cultures, the octopus is the central figure of the narrative, with its body physically opening up to the audience almost like a space in the universe or in the unconscious. With 12 other characters, Prouvost goes on a road trip of the ‘deep travel’; extending her senses like an octopus’s tentacles, the artist travels through different temporal and spatial tunnels.

Deep Travel Ink. set up at Atelier Hermès presents her video work The Wanderer – Bunker/Communication Sequence(2012), which is screened on an old monitor in the office installation. It is the fifth sequence from The Wanderer, Prouvost’s first feature-length film comprised of seven narrative sequences. In this project

클라이맥스에 도달하면 ‘당신이, 당신이 최고’라는 함창이 흘러나오며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우리를 자아를 조롱하기에 이른다.

작품의 결말부에서는 모든 것을 경험해 본 후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새와 나무, 풀과 꽃, 해변과 별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국 진정한 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가진 건 아무 것도 없지만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신약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자, 이 영상이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배금주의를 추적하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판타지를 제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마주하게 되는 작품 올라가셨어야죠(2019)는 앞뒤 맥락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갈래의 자유로운 해석을 불러 일으킨다. 당초 2019년 런던 지하철 프로젝트에 초청되어 전시되었던 포스터 문구 중의 하나로

그 나름의 문맥에서 트릭을 발휘했던 작업이지만 이제 막 심층 여행사와 신앙적으로 돈 버는 방법을 경험한 관객들에게는 예사롭지 않은 의미로 다가온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자유자재로 여행하며 무수한 트러블들을 제시하는 로르 프루보의 기발한 이야기 짓기는 우리가 현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식과 감각을 확장하는데 의미를 둔다.

based on Roy Macbeth's *The Wanderer by Franz Kafka* (2010), Prouvost explores how much mistranslations of languages might expand the meaning. Macbeth, who cannot read German, translated Kafka's *The Metamorphosis*(1915) into English arbitrarily without a dictionary or the Internet, resulting in a completely different, strange story about Gregor (the protagonist's name in Kafka's novella) and Betty. By taking Macbeth's text as a loose framework, Prouvost's project aimed to visualize communication's incompleteness.

From the moment the camera moves down to the underground of a beauty salon, the audience sees everything upside down. The underground bunker is everything upside down, and also a time warp occurs. Perhaps set in the Cold War era, people in uniforms are dominating the space with a rigid, authoritative attitude, tenaciously tracking the location of Gregor, while it is unclear whether or not he is a dangerous man. When a telephone—a tool for communication—is ringing excessively, communicating appears like an impossible task. Not only conversations amongst the members, but also communications between the past/bunker and the present/outside are rendered impossible.

The exhibition also features How to Make Money Religiously(2014), screened in a theater space next to the travel agency office. With the artist's charismatic voice-over telling captivating stories, layered with dizzying texts, tactile images, and powerful sounds, all in a fast motion, this video exemplifies the artist's matchless unique style. The speed is so fast that it is difficult to read the intertitles and even remember what went by just a moment ago, but the artist's voices and texts frequently command us to remember the details. It reminds us of how TV commercials try to imprint their products on our mind unwittingly. Speaking directly and indoctrinating us, Prouvost's voiceovers and texts engage the viewers as the protagonists of the narrative who must follow the creators' orders.

The video begins with a seductive voice that promises “This film will make you richer,” a tempting proposal that provokes our desire. We are immediately taken, but gradually we get anxious and lose trust as the boldfaced sentences begin to contradict what the persuasive voice is saying. The montage of disparate images and dramatic sounds aggravates our anxiety. Like the main characters being chased in crime thriller movies, we are on the run moving from London's alleyways to southern Italy and to elsewhere, following the voiceover's orders. Having flowed into a sun-drenched tax haven, we are finally baptized with money. But money is like the deal of Dr. Faust: it seems to give you pleasure, honor, and happiness, but it also constantly manipulates and intoxicates you, and puts you in dangerous situations. After replicating the visual pleasures and desires of Hollywood narrative cinema, the video reaches the climax, where a chorus sings “You are, you are the best,” as if deriding us that we have lost self-control.

At the end of the video, the artist conveys a message that true wealth is to be able to own birds and trees, grass and flowers, beaches and stars, and everything

at will. After we have seemingly experienced all and emptied our minds, Prouvost says, “You hold on nothing, but you know you can own anything. This film made you richer. This is how to make money religiously.” This work thus traces plutolatry in contemporary capitalist society while at the same time giving a fantasy that we can be free from money.

The exhibition ends with YOU SHOULD HAVE GONE UP(2019), which, without a given context, can evoke a myriad of different interpretations. From the series of posters Prouvost produced for the London Underground's public art project in 2019, the sentence performed its own tricks in its original context (inside a subway station). But to the exhibition visitors who have just viewed Deep Travel Ink. and How to Make Money Religiously, it may render a different meaning. Traveling freely across borders between past and future, between conscious and subconscious, Laure Prouvost's ingenious storytelling suggests countless troubles, which are aimed to expand our consciousness and senses so that we can experience the present more vividly.

- 1 인류학자이자 페미니스트, 문화이론가, 이야기꾼, 이질적인 자본주의와 글로벌리즘, 움직이는 세계와 국지적 장소들에 대한 조직 감식가인 애나 칭(Anna Tsing)은 세상 끝에 있는 버섯: 자본주의 폐허에서 일구는 삶의 가능성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에서 송이버섯의 그물망식 서식을 탐구하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민족지를 탐사한다. 모든 유기체는 불안정성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버섯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칭에 따르면 버섯의 생존 전략은 악랄적 자본주의로 인해 황폐화된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인간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2016) 최유미 옮김, 마농지, 2021, pp68-69 참조
- 2 프랑스 릴르에서 출생한 작가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성장기를 보냈고 18세부터 17년간 런던에 살면서 교육받고 작품활동을 했다. 이후 오늘날까지 런던과 벨기에 북부 앤트워프를 오가며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릴 때 불어를 배울 때도 복잡한 문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작가는 성인이 된 이후 줄곧 모국어가 아닌 영어와 플라망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생활한다. 철자법과 번역의 오류를 겪으며 느낀 이민자의 난처한 감정은 창조적인 감각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자양분이 되었다고 한다.
- 3 작품 Wantee는 2013년 테이트 브리튼에서 열렸던 Schwitters in Britain 전시의 일환으로 커미션 받은 작품이다. 로르 프루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억과 사실적인 서술이 어떻게 시간의 흐름과 상황을 따라 변화하고 수정되며 재사용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고자 했다.
- 4 도나 해러웨이가 2003년에 출간한 반려종 선언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의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생물학적 분류군의 범주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종을 횡단하면서 서로 얽혀 있는 자들을 분류하는 명칭으로 유기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의 책 p.21 참조) 해러웨이가 가장 어린 반려 친척에 편입시킨 사이보그와 로르 프루보의 스크린 머리를 가진 금속 막대 인물들은 인간화된 기계라는 측면에서 서로 상통한다.
- 5 Kate Brown과의 인터뷰, “Laure Prouvost, the Artist Representing France in the Venice Biennale, Wants You to Know She's a Big-Time Liar,” Artnet (February 7, 2019), <https://news.artnet.com/art-world/laure-prouvost-antwerp-1457791>

- 1 Anna Lowenhaupt Tsing,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On the Possibility of Life in Capitalist Ruin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5), p. 34. Anna Tsing is an anthropologist, feminist, cultural theorist, storyteller, and connoisseur of heterogeneous capitalism and globalism and of the moving world and regional places. In The Mushroom at the End of the World, Tsing traces the globalized trade of matsutake mushrooms, exploring the ethnography of contemporary capitalism through the multispecies geography. Like all other organisms, mushrooms grow and live in instability. According to Tsing, matsutake mushrooms' survival strategy has many implications for humans who must survive in a land ravaged by predatory capitalism. The author of this essay referred to the Korean translation(2021) of Donna Haraway's Staying with the Trouble(2016), pp. 68-69.
- 2 Prouvost was born in Lille, France, and grew up in Brussels, Belgium, before moving to London at the age of 18. In London, she lived for 17 years, first as a student and then as a professional artist. Currently she lives and works between London and Antwerp. Prouvost, who said she experienced difficulties learning French in her childhood due to complicated grammar, has challenged to live and work in the areas where English and Flemish are spoken. As an immigrant, Prouvost is familiar with feeling embarrassment for making errors in spelling or translation, which she says became nourishment to expand her creative senses.
- 3 Wantee was a commissioned production as part of the “Schwitters in Britain” exhibition at Tate Britain in 2013. Prouvost's aim was to explore how memories and realistic narratives of historical figures change, modified or reused over time and contexts.
- 4 “Companion species” is a concept Donna Haraway proposed in her 2003 book titled 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 Regardless of biological taxonomic classification, this designation can be applied to classifying not only organisms, but also any species. See the aforementioned Korean translation of Haraway's Staying with the Trouble, p. 21. There is an analogy between Haraway's cyborg and Prouvost's metal stick figure with monitor for head that both are humanized machines.
- 5 Laure Prouvost, in interview with Kate Brown, “Laure Prouvost, the Artist Representing France in the Venice Biennale, Wants You to Know She's a Big-Time Liar,” Artnet (February 7, 2019), <https://news.artnet.com/art-world/laure-prouvost-antwerp-1457791>

안소연 이번 전시는 총 4점의 작품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각의 작품은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그들을 연계하는 것은 당시 작품세계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여행’일 것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당신은 여행사 지점을 차렸습니까. 이 여행사는 언제, 누구와 함께 시작된 사업이며 그동안 어느 곳에서 지점을 운영했습니까?

로르 프루보 여행, 탈주, 소속감 등의 개념이 내 작업의 핵심을 이룹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육체적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주로 정신적 여행을 말합니다. 마음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몸 속을 여행할 수 있을까, 다른 존재의 내부를 여행할 수 있을까? 여행과 탈주, 다른 무언가가 되기, 장소의 클리셰... 이런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첫 작업으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사는 몇 년 전 뉴욕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삼촌이 시작한 사업인데, 이름이 ‘심층 여행사’입니다. 외관상으로는 구식 소통 방식을 이용하던 80-90년대 복고 스타일의 여행사로, 실제 여행사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름이 ‘심층 여행 주식회사(Deep Travel Ink.)’예요. 삼촌이 이 여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것은 ‘심층’입니다. 사람들의 자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 자신의 욕망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 이 여행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진짜 구식 여행사인 줄 알고 어떤 여행이 가능할지 살펴보죠. 프랑크푸르트와 바젤에서 여행사를 선보였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메이카 여행이 가능할까요?” 등의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얕으세요. 곧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로 반응했죠. 거기 오래 앉아있다 보면 사람들은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작업과 삼촌의 작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계획은,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만들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가능한 한 많은 관점들을 갖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삼촌에게 얼마나 성공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에 매우 열심이세요. 아틀리에 에르메스의 초대를 받고 우리 모두 기뻐했습니다. 삼촌도 여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하세요. 멋진 일이지요.

안 여행의 목적지가 흥미롭습니다. ‘심층 여행’은 어느 곳을 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전설적인 할아버지의 탐험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겠지요?

프 네, 그런 것 같아요. ‘심층 여행’, 이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 속으로 Into All That is Here라는 제목의 영화를 만든 적 있어요. 내 할아버지의 잠재의식에 대한 영화예요. 그가 왜 탐험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멀리 가고 싶으신 건지 등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그는 자기자신의 욕망을 탐험하고 있었던 걸까, 아님 도피하고 싶었던 걸까? 물론, 그는 영국을 충분히 탐험한 후

AHN SOYEON The exhibition at Atelier Hermès consists of a total of four works. Each work was produced individually at different times, but they have close ties with one another and what links them is the theme of “travel” which is central to your practice. You open a travel agency this time in Atelier Hermès. When and with whom did you launch the travel agency business and where did you run its franchises previously?

LAURE PROUVOST The idea of traveling, escaping, belonging are central to my work. Migrating and going into spaces mentally, physically as well, but mostly mentally. Can we migrate and read mind? Can we migrate into consciousness, can we migrate into the elements that we are less aware of, can we migrate into someone else’s body, can we travel into another being? Traveling and escaping, becoming something else, clichés of places. All of these keep coming from the first project that I did.

The travel agency was launched in New York some years ago. It was really a project my uncle has taken on, and it’s called “Deep Travel Agency.” On the façade we play an old-fashioned travel agency from the 80s and 90s, when communication looks passé. But it’s trying to look like it can really take you to places. It’s called Deep Travel Ink. What my uncle is selling you is depth. Going deep inside of your self-conscious. Going deep into your own desire. But when you come in as a visitor, you would first think you are in an old travel agency and maybe there’s a trip you can take. I remember when we showed it in Frankfurt and Basel, people would come in asking questions like “I want to go to Jamaica and how do we get there?” Then we would respond by saying “Please take a seat. We’ll come and help you.” Sitting there for a really long, they would slowly receive the hidden messages.

There’s a lot of connection between my practice and my uncle’s practice. The idea is to make it really a franchise business, keep the travel around the world, and has as many outlooks as possible. I don’t know how in terms of business it’s going for my uncle. He’s very keen to get it going. Upon receiving your invitation, we were so happy. He’s very excited to be coming and telling his story with you. It’s wonderful.

AHN The destination of what you call “Deep Travel” is very intriguing. Is it connected to your legendary grandfather’s exploration as well?

아프리카로 가셨어요. 몇 년째 돌아오지 않고 계셔서 가족 모두가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모두 더 멀리, 더 깊이, 먼 곳 어딘가, 보이는 외관 너머로 여행하는 발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작업 속에 할아버지의 존재는 확실하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삼촌이 여행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개념적 연구인 거죠.

안 당신은 작업에서 삼촌과 할아버지에 대해 언급하는데, 두 분 모두 남자 가족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당신 작업에서 말은 특별한 역할이 있는지요?

프 남성 중심의 미술사 관련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내 작업에는 할머니의 존재도 있습니다. 할머니의 꿈에 대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요. 할머니는 멋진 도자기를 만드세요. 즉, 가족이 모두 작업에 연결되어 있어요. 모두가 작업실에 드나들며 뭔가를 만들지요. 그래서 가끔 통제기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작업을 삼촌이 이어받기도 하고요.

예술가로서의 지배권을 잃게 되는 현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술가가 죽으면, 그의 이름이 들어간 카드 같은 것들을 사회는 만들어내죠. 이것은 내 작업의 주제이기도 해요. 예술가는 무언가를 암시할 수 있는데, 이후 이것은 다른 유형의 흔적, 다른 유형의 시간, 다른 유형의 중요성으로 진화하게 되지요. 사회의 것이 돼요.

남성 인물은 대가(大家) 또는 마에스트로 등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내가 많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감각을 가진,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술가의 위치는 무엇일까요? 난 예술은 교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그린시 그림들 위에 덧작업을 하시면서 더 나은 그림들로 발전시키시죠. 남성 예술가의 작업을 개선하시는 거예요. 난 이걸 두 분의 대화로 봅니다. 어쨌든 할아버지는 과거,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인물이지요.

안 두 전시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는 높이 120cm 폭 80cm의 작은 문입니다. 실제로 앤트워프에 있는 당시 작업실 문도 같은 크기라고 알고 있어요. 실제와 허구의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당신은 현실에서도 매일 토끼의 굴을 드나드는 경험을 하는 건가요? 당신이 말하는 ‘무단출입(trespassing)’ 개념과 연관이 있나요?

프 두 문 모두 신체의 위치에 관한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앤트워프에 있는 작업실의 문과 똑같은 크기의 문은 ‘링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신축성 있는 두 팔이 서로 맞닿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하도록 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작업실에 들어가기 위해 그 문을 통과하면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관람객분들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자신이 숨겨놓은 무언가의 속으로,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것들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요. 난 이것이 일종의 ‘무단출입’이라고 봅니다. 무단출입 개념은 항상 내 작업의 큰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행위는 오늘날 우리 일상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에 도착하면 그곳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 무단출입을 하게 됩니다. 정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뒷문을 이용해야 할 수도 있지요. 바로 이런 아이디어들이 베니스 전시의 중심을 이뤘습니다. 작은 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기. 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안 낡고 활기 없는 사무실의 분위기와는 달리 여행사 홍보 영상은 “여행으로의 초대”의 선물을 연상시키듯, ‘호화, 평온, 쾌락’에 대한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현실과 꿈 사이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PROUVOST Yes, I guess you’re right. “Deep Travel” - It’s a lot of different points of view. There’s a film I called Into All That is Here. It’s about the subconscious of my grandfather, exploring why he’s digging, where he’s going, and how far he wants to go. Was he digging into his own desire or was he escaping? But of course, after digging enough of England he’s gone to Africa. Now it’s been a few years my granddad hasn’t been back, so the whole family has been very worried, but we are all very taken by the idea of going farther, going deeper, and going into places away, maybe going farther than the façades of things. Yes, so definitely, he’s very present and that’s why my uncle started this travel agency. It’s a conceptual research.

AHN You introduce your uncle and grandfather, who are both male members of your family. What do they represent? Is there a particular role that they are playing in your work?

PROUVOST I guess the question comes from the male-dominated history of art. But my grandma is also very present as well. She has been in many films on her own which I have produced about my grandma’s dreams. She makes wonderful potteries. I mean, the whole family is connected. Basically everyone is involved in the studio, making things. Sometimes I lose control, with my uncle taking over the practice.

I like the idea of losing control as an artist. When an artist dies, the society takes in and makes a card of your name and such. This is also a subject in the work that I’m doing. An artist can hint at things, and afterwards, the work becomes malleable and evolves into a different type of cachet, a different type of time, a different type of importance. It’s taken by the society. The male figure is a bit about the idea of the master, the maestro, which I question very much. What’s this position of an artist as an “above-it-all” having an overall sense of everything, while I believe it’s much more of an exchange. My grandma has been using a lot of my granddad’s paintings and improving them. She is improving the work of the male artist. I think it’s really a dialogue between the two. But my granddad is a figure of the past, a figure of where we’ve come out of.

AHN The two exhibition spaces are connected by a small opening that is 120cm high and 80cm wide. I know that your studio door in Antwerp is exactly the same size. Is the door like a rabbit’s burrow into a Wonderland that you experience every day, as you can freely travel between the real and fictional worlds? Or is it a form of your concept of trespassing?

PROUVOST For both doors, it’s about a position of the body, as well as about entering of a state physically. Having a same-sized door there as that of the door in my studio in Antwerp, is like a link, or an elastic arm touching each other, that we experience the same thing. It’s also about physically entering of a state. Doing it every day to get into my studio is like switching off we go, entering a different world. I think the same for the

프 여행사는 설치일뿐만 아니라 영상작업도 포함합니다. 영상은 소비주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소비하고 이데올로기, 사상, 자연 등을 소비하지요. 이것을 나는 작품 속에서 실속 없는 잔치, “이게 당신을 충족시켜줄 것”이라는 약속, 짝퉁가방이나 가짜명품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결국, 당신이 삶에서 가진 것들이 당신만의 럭셔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보고 숨쉬는 것들이 럭셔리임을, 럭셔리라는 소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임을 영상의 끝에 제시합니다. 호화와 평온은 실제로 여행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트릭입니다. 여행사들은 홍보물에서 호텔의 쓰레기 같은 면은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호텔의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죠. 영상은 그런 클리셰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작업입니다. 이상과 욕망에 관한 것이죠.

안 심해 여행으로의 꿈을 상기시키듯, 수조에는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는 당신의 작품세계에서 언제나 의미 있는 상징체로 등장하고 지난번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에서는 주인공 역할을 했습니다. 문어에 대해, 그리고 베니스 전시작품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프 베니스 비엔날레 프랑스관 전시에서 문어는 중심 모티브였습니다. 문어도 심층, 심해, 지구 생명체의 심층, 다른 존재들의 복잡성, 마음과 두뇌의 복잡성 등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얼마나 깊이 갈 수 있을까요? 문어의 뇌는 촉수에 있어요. 즉각적 감각과 사고가 베니스 전시에서 다른 핵심 주제였습니다.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 영상 속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촉수가 되기를 바랐어요. 이들이 각각 거대한 동물 또는 인류의 촉수가 되어 현재, ‘지금, 여기’의 삶에 민감해지고 연결되기를요. 문어에 대한 발상은 그렇게 나왔어요. 프랑스관 또한 일종의 거대한 생물처럼 보이도록 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정문이 아닌 뒷문을 통해 입장해야 했어요. 작은 수풀 속에 난 길을 통해 전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었죠. 프랑스관 안에는 두 개의 작은 공간과 한 개의 메인 공간이 있는데, 이 메인 공간을 문어의 몸통으로 구상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문어’가 되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테지만, 내 마음 속에선 프랑스관 건물이 촉수 달린 문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몸통에 모든 추억과 경험을 담고 있는 문어처럼요. 네, 그녀는 작업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안 책상과 서가 위에는 잡다한 사무기와 더불어 흥미로운 세라믹 오브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작업에서 애호되는 비전통적인 조각 재료인 세라믹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알려주세요.

프 여행사에 있는 조각품들은 모두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전시를 하는 곳마다 할머니가 이것들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전시해야 하죠. 삼촌은 고양이를 선호하시고, 밤에 사용할 수 있는 양초도 두시고요. 이 모두가 유용한 물건들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오브제들은 예술과 예술의 유용성에 대한 화두를 풀어냅니다. 우리가 예술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 예술을 먹고, 하고, 사용하고, 일상생활의 일부로 가질 수 있을까? 이 오브제들은 여행사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술로 여겨지는 것과 예술로 여겨지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되고요. 이 돌이 나뭇하이를 때가 저는 좋아요. 수작업으로 만든 도자기와 플라스틱 의자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을까요? 이 모든 도자기를 손수 만드시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가끔 난 할머니와 드라이브하며 찻주전자를 상상하거나 여러 종류의 차,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지, 쌀을 넣을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안 세라믹 오브제들은 할아버지를 기념하는 자료관 설립에 필요한 기금 모금을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었나요?

audience; they enter into something they've hidden, something they didn't know that existed. I think this is a kind of trespassing. Trespassing has always been a big part of my practice. Trespassing borders has many links to the everyday life of people today. When you arrive in a new country, you don't know the rules, so you have to trespass trying to understand your position. You might not always find the main front door, you may have to go through the back door. All this was very central in the work I did in Venice. Sneaking through the little door. I think it's important.

AHN In contrast with the old and bland office interior, the infomercials in your travel agency are full of temptations of the 'Luxe, Calm, and Voluptuous,' enticing you to take the "Invitation to the Voyage." Is this contrast to reveal the gap between reality and dreams?

PROUVOST We have a film as well as an installation of the travel agency. It's very much the idea of consumerism. We want to consume freedom, we consume ideology, ideas, nature, and so on. The ways I translate it into a work is a lot of yack, copies of bags, copies of luxurious things you could get, the idea of "This will fulfill you." But in the end, everything you live with is your luxury – what you see and breathe. It's you, more than owning things. That's what the film suggests at the end. The ideas of luxe and calm are really a trick that travel agencies give you. They're never going to show you a rubbish side of the hotel. Only lovely sides of the hotel and the clichés of it all. It's much about this ideal view and desire. So we're using their systems.

AHN The octopus in a water tank evokes a dream of traveling to the deep sea. An octopus has often appeared in your work as a meaningful being, and especially played a leading role in your French Pavilion exhibition at the 2019 Venice Biennale. Please tell us about the meaning of an octopus in your work, and also about your Venice Biennale exhibition.

PROUVOST The octopus was quite central when I got invited to represent France at the Venice Biennale. I think the octopus comes from depth as well, the depth of the sea, the depth of a life on earth, and the complexity of other beings, the complexity of the minds and of the brains. How can we go deeper with them? The octopus' brain is in the tentacles. The idea of immediate sensation and thinking was the core theme or subject I had for the Venice exhibition. I hoped that each visitor and each character of the film would become a tentacle of a bigger animal, of a human race maybe. I hoped they would become very sensitive and very much in connection, living in the moment, right here and right now. That's how the octopus came. The pavilion also looked like a kind of a big creature. The visitors were led to enter through the backdoor, not the front door. They could get into the show after finding ways through the little bushes. Inside the pavilion, there were two side rooms and a main room, and the main room was conceptualized as the body of

프 네, 기금 모금을 위해 찻주전자와 찻잔들도 만들어요. 지금이 아직 많이 모이지 않아서 더 만들어야 하죠. 할머니는 이 일에 열정적이세요. 태피스트리도 만드셨고요. 네, 할머니께서 큰 역할을 하고 계세요. 너무 좋죠. 세라믹은 실용성과 유용성 면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라믹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세라믹의 유용성에 대한 질문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안 책상 위 낡은 모니터에는 방랑자 -빙커/통신 시퀀스(2012)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시퀀스로 된 본격적인 장편영화 중 하나로 지하 벙커에서 벌어지는 권위적이면서도 소통이 부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로이 맥베스(Roy Macbeth)를 경유한 프란츠 카프카 읽기는 위 아래가 뒤집힌 공간처럼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프 방랑자는 7 개 시퀀스로 구성된 설치 작업의 일부이며, 몇 년 전에는 장편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카프카의 소설을 번역한 로이 맥베스의 작업에서 영감 받은 작업이에요. 맥베스는 카프카의 중편소설을 독일어에서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전 없이, 단어들을 추측하며 번역했습니다. 그는 독일어를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추측해야만 했죠. 그 결과, 제임스 조이스의 글처럼 시적인 텍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다시 영화로 오역하고 싶습니다. 일종의 협업이 되었죠. 난 내가 원하는 요소들은 가져왔지만, 원치 않는 요소들도 있었기 때문에, 몇몇 등장인물이 언어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러면서 주인공 그레고르에 대한 내용이 추가 됐어요. 이 작업은 또한 텍스트의 변신들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텍스트에서 필름으로, 이미지에서 퍼포먼스로의 변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카프카의 원작 소설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신 시퀀스는 통신을 주제로 한 벙커입니다. 여행사 안에 통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는데, 여행사가 취하고 있는 옛날 스타일과 연결되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안 신앙적으로 돈 버는 방법(2014)에서는 당신의 특징적인 스타일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보이스오버와 어지러운 문장들, 그리고 분위기를 극대화하는 음악이 어울려져 우리를 매료시키지요. 한편의 스텝 넘치는 누아르 영화와 같은 이 작업은 동시대 사회 자본주의의 이면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언급한 작업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프 이 작업은 망각을 위하여 For Forgetting라는 제목의 전시를 위해 제작했습니다. 자본주의에 관한, 신앙적으로 돈 버는 방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잊는 방법에 관한 작업입니다. 수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는데, 당신의 질문이 정확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우리는 처음에 이것저것을 배우고, 이것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어른처럼 행동해야 하죠. “이것을 해라, 거기로 가라, 이것을 해라. 이게 거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아름다운 집에 도달해야 한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그들은 이런 자본주의적 사상을 말합니다. 보트, 자동차, 집, 휴가. 극단으로 밀어붙임, 클리셰... 눈속임, 스팸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그들은 “이런이런 것들을 위해 당신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스팸 메시지를 보내고 은행계좌 세부정보를 빼내기 위해 노력하죠. 이런 트릭들이 꽤 만연해요. 당신 말대로, 이 영화는 “그래, 당신은 모든 걸 가졌어. 당신은 열심히 일했고 이 모든 걸 해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이 소유하는 것은 당신 눈 앞에 있는 것이고, 소유란 무언가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 라고 말합니다. 꽤 낭만적이지요. 영화 자체가 낭만적이라는 말이

the octopus. The building became an “octopus.” No one would know it, but in my mind, it was created like an octopus with tentacles, with all the reminiscences and gatherings of experiences in the main body. Yes, she's always quite present.

AHN Interesting ceramic objects are placed on the desk and bookshelf along with miscellaneous office equipment. Ceramics often appear in you work, and I'm curious how you came to prefer ceramics, non-traditional sculptural materials.

PROUVOST All the sculptures in the travel agency are the sculptures my grandma made. She brings them around wherever we go, so we have no choice, we have to show them. Also, my uncle was very pleased to have a cat, and we have a candle for night. They've become useful objects. My grandma brings in the dialogue about art and art's usefulness. Can we live with art, eat it, lick it, use it, have it as part of everyday life? My uncle sometimes goes to her place and finds things. “Oh, I love this. Can I take it and use it in my travel agency? Maybe some people would like it.” So it's very random, you know. They are present for what they are, as much as the office is. I think it's also about the importance of what is considered art or not. I like when it's side by side. Which is more valuable between a noble clay pottery and plastic chair? It's great that my grandma makes all these ceramics. Sometimes I'd drive with her and we imagine a teapot, all different kinds of tea, where to bring them, and put rice breeze because we all love rice breeze.

AHN Didn't you say the ceramic works are for raising funds to build your grandfather's visiting center?

PROUVOST Yes. We also made teapots and cups to fundraise. The funds are not very high so we're still waiting. We need to produce more. My grandma is quite taken. She has also made some tapestries. So she plays a big part. It's definitely, quite nice. Ceramics are in demand in terms of practicality and usefulness. I think that's why we work with them. It's also a play with the idea of how useful it should be sometime or not.

AHN The Wanderer – Bunker / Communication Sequence (2012) will be screened on an old monitor in the office installation. A sequence of your seven-part feature-length film The Wanderer, it depicts an authoritative situation without communication in an underground bunker. The idea of reading Franz Kafka's The Metamorphosis via Roy Macbeth's translation sounds full of contradictions, just like the depicted environment turned upside down. Please tell us about this film.

PROUVOST The Wanderer is part of a 7 sequence in terms of installation. It's also a feature-length film I made some years ago. It came from the translation project that Roy Macbeth did of Kafka's story. He translated the novella from German into English without a dictionary, so he guessed the words. He didn't understand German, so he was guessing everything. And what resulted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어떻게 속해 있는지, 당신이 어떻게 나뉘었이고 하늘인지, 당신 자체가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당신은 성취에 대한 당신의 욕망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안 형식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서사일 것이고 그것은 당신의 보이소오버가 이끌어 갑니다. 관객은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당신과 마주한다는 느낌이 들만큼 작품에서 작가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데요, 당신은 이런 역할을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행하는 것인가요?

프 나는 관객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고, 작품을 통해 교류하기를 바랍니다. 관객이 직접 생각하고 성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요. 나는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소통하려는 자세—정신적이든 추상적이든 이의 다른 종류이든—를 갖고 작업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보이소오버가 관객을 이끄는 이런 작업에서는 그런 점이 직설적으로 드러나죠. 가끔 나는 눈속임 (trompe-l'oeil) 방식을 활용합니다. 실제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과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물론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안 제공받은 정보가 많은 만큼 기억과 망각의 문제가 발생하며 보는 이에 따라 작품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유혹자이자 명령자이기도 한 당신은 “이 모든 디테일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자주 주의를 주지만, 우리는 반대로 이제까지 본 것을 잊어버릴 만큼 눈을 잃고 당신의 목소리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의 주술적인 어투는 관객의 무의식에 다가가려는 의도에서 인가요?

프 네, 계속해서 관객에게 “당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그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등등을 말합니다. 물론 여러 층위를 통해서요. 이 작업은 우리를 둘러싼 ‘정보 과부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영상 속 목소리가 계속해서 관객에게 말을 걸며 관객 자신의 자의식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유도하면서, 다사다난한 바쁜 삶에서 벗어나 작품 속에 몰입하도록 합니다.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한발짝 물러날 기회를 주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 작업들은 당신이 꿈 꾸도록 제안합니다.

안 당신의 언술은 텍스트의 형태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캔버스 작업인 올라가셨어야죠(2019)은 2019년 런던 지하철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아틀리에 에르메스 전시공간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작품의 설득력이 더 큰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 ‘런던 언더그라운드’는 런던의 전 지하철역에 걸쳐 있는 각종 간판과 포스터들을 소재로 작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는 정보와 오보에 대한 발상을 재미있게 풀어보고 싶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말을 걸고 싶어하고, 당신이 올라 갔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왼쪽으로 갔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오른쪽으로 갔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등등. 이런 상황에서는 길을 잃기 쉬우니까요. 이 작품이 지하 공간에서 전시되는 건 정말 잘 된 일입니다. 이동할 때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나 연결고리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맞게 찾아 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큼니다. 그래서 이런 간판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런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을 즐기시던 할머니와도 연결됩니다.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할머니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죠. 올라가셨어야죠는 ‘위쪽’에 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언더그라운드는

a poetic text of sorts, quiet like James Joyce. I wanted to mistranslate it again into a film. So we worked together. I took elements that I wanted, but some I didn’t want, so I turned them around trying to get some of the characters to talk about language. So it became a lot about the main character Gregor. It’s also about metamorphoses of a text – going from a text to a film to an image to a performance and so on. All this is about metamorphosis of something, and of the actual text of Kafka. That’s how it became a film.

The Bunker Sequence is really a bunker around communication. I felt it would be interesting to have it as part of the travel agency as a communication space where we can put you in contact with things. It plays on that idea, and it also has a lot of elements in connection to the travel agency in terms of the aesthetics of a certain era.

AHN In How To Make Money Religiously(2014), your unique style appears more pronounced. Countless images flow rapidly, with spellbinding voiceovers, dizzying sentences, and elating music that altogether captivate your attention. It’s like watching a highly thrilling noir film. Could one say the film is making a relatively direct comment on the other side of contemporary capitalism?

PROUVOST I created it for the exhibition called For Forgetting. It’s around capitalism, around how to make money religiously, how to forget the past to move forward.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elements in it, but I guess you’ve put it in your question rightly. First you learn things and then you learn to use these things, and then you have to act as an adult. “Do this, go there, and do this. That’s how you’re gonna get there. You must get to this beautiful house.” They tell you this capitalist idea of what makes one happy. On a ship, cars, houses, and holidays. All the pushing to the level of extremes and the clichés of it. That’s also a bit around the trompe-l’oeil and spam as well. People spam you with messages like “we need your money for this” and what might be possible for you to give your bank account details. You know this kind of trigger. That’s pretty dominant. As you say, at the end, the film is really about “Okay, you’ve got everything, you’ve worked so hard, you did all these things.” But then at the end you realize that what you own is what you see, what you live, more than owning. So it’s romantic. The film is not romantic. But it’s charming in that it suggests how you belong to it, or how you are the leaf, you are the sky, you are the world you are. You are much more than your desire of certain fulfillment.

AHN In the film, the narrative is as important as the form, and it is led by your own voiceover. Your presence in the work stands out enough to make the audience feel they are facing you, the artist, with the screen in between. There are many artists who hide behind their screens or canvases. Do you play this role with a performance aspect in mind?

PROUVOST I want to connect with my audience. I want to be in dialogue with people. I hope there’s an exchange in a work. But there’s still something that you might

항상 언더그라운드이니까요. 좀 가볍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관람객의 위치에 대해 알려주려는 의미도 있습니다. 5미터 더 가서 벽이 나올 거라는 표지판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물리적으로 5미터 떨어진 곳에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죠. 관람객들이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좋겠습니다.

안 당신의 작업은 탈주의 개념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허구적 이야기로 유쾌하게 풀어내지만 그 이면엔 젠더, 환경, 자본주의 등 첨예한 현실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논리 대신 모순의 방법이 지닌 시적인 것의 힘을 더 신뢰하는 것이겠지요?

프 맞아요, 감사해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일을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내가 다루고자 하는 젠더, 환경, 자본주의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도 않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술가로서, 우리가 특유의 지성과 유쾌함으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순수한 불안감뿐만 아니라 인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적어도 정신적으로나마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작업합니다. 우리가 어디쯤에 와있는지 인식하는 일이지요. 모순으로 가득하지만, 나는 교훈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때때로 나에게 작업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순들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모순들에 속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을 스캔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것은 일정한 거리감을 필요로 하고, 유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려운 주제는 유머를 수반합니다.

안 협업은 당신에게 중요한 작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동료 예술가들과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여러 전시를 큐레이팅하기도 했습니다. 가상의 삼촌과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맺었고요. 당신의 작업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설득합니다. 당신에게 협업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프 내 작업에서 협업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나는 음악가들과도 협업한 적이 있어요. 물질성의 바깥세상, 언어의 바깥세상의 감각이나 다이내믹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나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협업합니다. 협력자는 내 이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협업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후 그 작품을 보고 질문을 던지는 관람객들과 협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협업인 것이죠. 협업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훨씬 그 이상이며 범위도 훨씬 더 넓습니다. 특히 베니스비엔날레 이후로 나는 음악가, 배우, 가족 등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내 강아지도, 영화에 등장하는 새도 협력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됩니다. 내 사촌들도 아름다운 협력자입니다.

안 당신의 웹사이트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스크린 바로 앞에서 방문자를 항상 보살피고 사랑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밤낮으로 외로움을 달래주겠노라는 약속은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전에 이미 당신과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간의 작업 리스트들도 조금 난해하지만 긴 이야기로 엮여 전달되는데요,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보살피고 신경 쓸 것입니다. 신경 쓸 거예요. 보살필 거예요. 우리는 심장과 감정을 만지기

take in and push to reflect on. I think that most artists produce works ready to have a conversation, be it mental, abstract, or else. In these works, I think that’s quite direct because of these voices that take you on a trip. It’s used as a tool to be together. Sometimes I take the idea of trompe-l’oeil. It’s not same as actually going on a trip together. But it’s to enhance the idea that we’re all living in the same world. Definitely, to an extent, I perform to the camera.

AHN So much information is provided in the film that it causes memory and forgetting problems for the audience, and different viewers may understand it very differently. You, as both a tempter and a provocateur, often warn us that “YOU HAVE TO REMEMBER EVERY DETAILS” but on the contrary, your voiceover is mesmerizing, driving us to forget what we’ve seen so far and fall into your voice. Is your magical tone intended to get to the audience’s unconsciousness?

PROUVOST Yes, definitely, it keeps telling you “Remember this, you will need this, don’t forget you’re gonna need this when you’ll be going and this will lead you there” and so on. But of course, it’s very layered. I think it’s also about information overload that surrounds us. There’s a moment we forget, and there’s a voice charming you to go deeper into your self-consciousness, and then hoping you might forget what you need to do and get immersed in the artwork away from the busyness of your life, to step away. Art has this power of giving us a chance to step away. These pieces suggest this letting you dream.

AHN You sometimes express your ideas through texts. I’ve been informed that your canvas work titled YOU SHOULD HAVE GONE UP(2019) is part of the series produced for London’s underground public art project in 2019. The work sounds convincing here at Atelier Hermès as well, because it is located in an underground floor. What kinds of works did you produce for Art on the Underground?

PROUVOST The piece was made upon the invitation from the London Underground to play with different kinds of signage and posters in all of London underground stations. I played with the ideas of information, misinformation, someone behind you wants to talk to you, someone saying you should have gone up, you should have gone left, you should have gone right, and so on, because you always lose yourself in this kind of situation. I think it’s totally nice to have it in the basement. When you move, you always feel you might be missing something, something important, your connection to something. There’s a lot of pressure on getting it right. So it was one of the signs we produced. The project was also connected to my grandmother who used to love sliding down the escalators of London. She’d be telling me she used to do that. So I did a drawing of her going down the escalators. It’s also about being above as well. Because in the underground, you’re always in the underground. Yes, so it’s kind of light, but it also connects you to the place where you are. Signs for me are very much about making you aware of where you are. Sometimes you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하자면, 가족처럼 함께 일을 계속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여러 다른 부분들을 만지고자 합니다. 여러 전시 계획이 있습니다. 멋진 일이죠. 나는 여러 공간적 상황을 작업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해변 등에서의 행사에 초대받아 참석해야 하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은 여러 협력자들과 작업하며 계속 확장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더불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연관된 일에도 참여하려고 합니다. 나는 몰렌베크(Molenbeek)에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입니다. 신축성 있는 팔을 사용해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도 세상을 만질 수 있고 관점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신축성 있는 팔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2월 24일 화상 인터뷰로 진행됨

come across a sign telling you a wall will be 5 meters farther, then your mind physically creates a wall 5 meters away farther. That's making images. I'd like the audience to make images.

AHN Your work joyfully unravels the concept of escape with fictional stories in the psychological level, but behind that it also contains sharp real problems such as gender, environment, and capitalism. It appears that instead of a logical structure, you trust the power of the poetic in the method of contradiction. Would you agree?

PROUVOST Yes, thank you, what a nice, beautiful question you've written. Thank you. I think we, a lot of artists, all reflect what's happening in our society or what's touching the world at the certain moment. The world now is overwhelmed by, or is aware of those issues of gender, environment, and capitalism, which I try to trigger. I don't want to be a politician or someone pointing at things, someone who says what's right and what's wrong. As an artist, I consider how we can look at it with certain intelligence and joyfulness, and create not just a pure anxiety, but awareness, so then we can be much more active at least mentally. It's more like being very aware of where we are. It's full of contradictions, but I'm not giving lessons. The world is so full of contradictions. Sometimes for me it's about looking at these contradictions that surround us, and how we belong to these contradictions. It's more like scanning a situation. We have a certain distance. It's impossible without humor. Humor comes in in a difficult subject.

AHN Collaboration seems to be an important way of working for you. You've worked on several projects with fellow artists, and you've also curated several exhibitions. You've even partnered with your fictitious uncle for a business. You persuade us to participate in your work. What does collaboration mean to you?

PROUVOST Collaboration is very wide in the practice I'm doing. I've worked with musicians, when there was something that I felt we would gain from the dynamic, the senses that are outside of words, outside of materiality. I collaborate with people constantly. It could be with my neighbors, it could be with my family, it could be with you. I think it's very important. Collaboration operates very much in the making of the piece, but also afterwards, we collaborate with the visitors, who are looking at my work and asking questions. That's definitely a collaboration of sharing ideas. Collaboration is not just fulfilling a job; it's much more and much wider. It's especially since the Venice Biennale that I've worked with musicians, actors, family members, all kinds of people. My dog is a collaborator as well. Or the bird in my film. So all of these become one. A lot of cousins of mine are beautiful collaborators.

AHN Your website is really great. I love it. On the entrance page, you promise to always take care, love, warm up, and soothe loneliness day and night, and it readily makes us feel

close to you before getting information about your work. Your previous works are not simply listed, but have been woven into a narrative story. My last question is about your future plans. What projects will be added to that story in the near future?

PROUVOST We'll keep caring, even if we just speak so. We'll care. We'll care. We all try to touch hearts and feelings. Speaking of plans, to carry on the working as a family, we try to touch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re are a lot of exhibitions, which is wonderful. I love working in space, and being invited to play with situations, but I'm also being asked to show up on the beach and so on. So the family keeps extending itself with different collaborators. That's the way the future looks like. I also want to be involved in what's close to home. I live in Molenbeek, which is an area that has long been abandoned, so it needs a lot of love and care. With elastic arms, we can touch the world and share different points of view, while being present in where we are. Keeping the elastic arms is important.

Interview was carried out on 24 February 2022
by Teams



아저씨의 여행사 가맹점, 심층 여행사
전시 전경
Installation view of Uncle's Travel
Agency Franchise, Deep Travel Ink.
2016 - ongoing

DEEP TRAVELS
INT. VAC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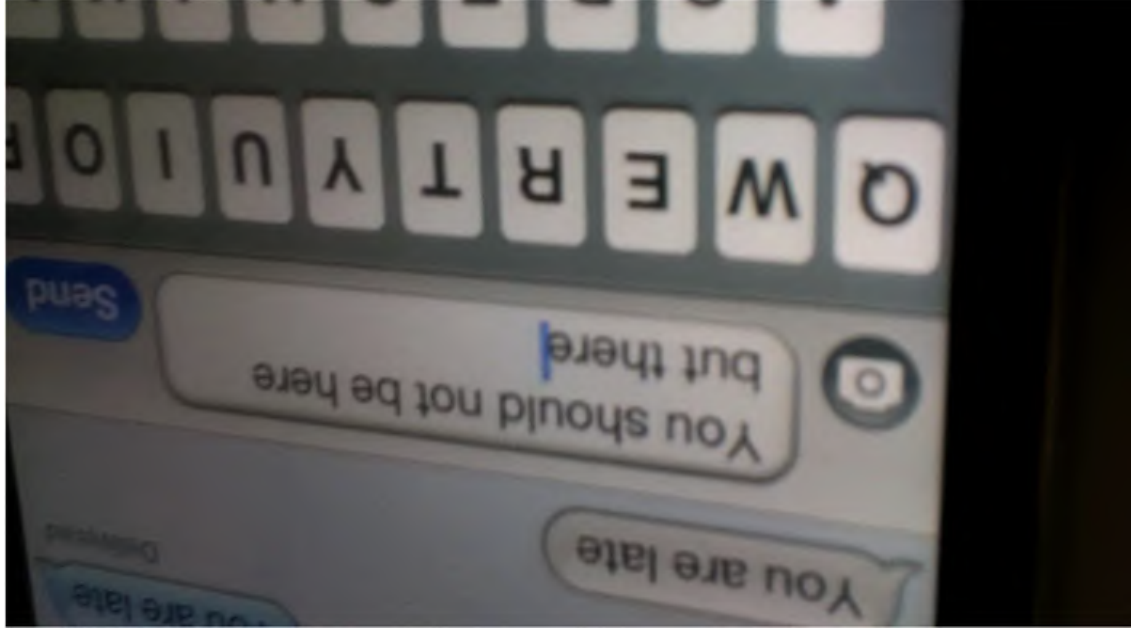
여행 정보광고
HD 비디오, 2분 37초
Travel Infomercial
HD video, 2 minutes 37 seconds,
dimensions variable, 2016







방랑자 - 벙커/통신 시퀀스
HD 비디오, 11분 39초
The Wanderer - Bunker/
Communication Sequence
HD video, 11 minutes 39 seconds,
dimensions variable, 2012







당신이 와줘서 우린 정말 기뻐

신앙적으로 돈 버는 방법
HD 비디오, 8분 44초
How to Make Money Religiously
HD video, 8 minutes 44 seconds,
dimensions variable, 2014




THIS MAN IS THERE
WAITING FOR YOU



LIBERTY TAX



EVEN
READING THIS
WILL MAKE YOU
RICHER

A black rectangular artwork with white text. The text is centered and reads "YOU SHOULD HAVE GONE UP" in a bold, sans-serif font, arranged in four lines.

YOU
SHOULD
HAVE
GONE UP

올라가셨어야죠
보드에 아크릴과 바니시
YOU SHOULD HAVE GONE UP
Acrylic and varnish on board,
57.1 x 37.2 x 2 cm, 2019

LAURE PROUVOST (B.1978)

Born in Lille, currently based in Antwerp

EDUCATION

- 2010 MFA,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London, UK
- 2002 BFA, Central St Martins, London,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 2021 Deep See Blue Surrounding You, Vois Ce Bleu Profond Te Fondre, Bonnefanten Museum, Maastricht, The Netherlands
- The Long Waited, Weighted, Gathering, Manchester Jewish Museum, Manchester, UK; Lisson Gallery, East Hampton, NY, USA
- Our elastic arm hold in tight through the clouds (curated by Henriette Bretton-Meyer), Kunsthal Charlottenborg, Copenhagen, Denmark
- 2020 Re-dit-en-un-in-learning CENTER, Lisson Gallery, London, UK
- Deep See Blue Surrounding You / Vois Ce Bleu Profond Te Fondre (curated by Marie-Amélie Senot), LAM, Villeneuve d'Ascq, France
- Melting into one another ho hot chaud it heating dip (curated by Luis Silva and João Mourão), Kunsthalle Lissabon, Lisbon, Portugal
- 2019 AM-BIG-YOU-US LEGSICON, M HKA -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twerp, Belgium
- Deep See Blue Surrounding You, Vois Ce Bleu Profond Te Fondre (curated by Martha Kirszenbaum), French Pavilion, 58th International Venice Biennale, Venice, Italy
- 2018 Ring, Sing and Drink for Trespassing, Palais de Tokyo, Paris, France
- They Are Waiting for You, BASS Museum, Miami, FL, USA
- They Are Waiting for You, Performance for stage at the McGuire Theatre, Minneapolis, MN, USA
- 2017 softer and rounder so as to shine through your smooth marble, SALT Galata, Istanbul, Turkey
- 2016 And she will say: hi her, ailleurs, to higher grounds..., Kunstmuseum Luzern, Luzern, Switzerland
- GDM – Grand Dad's Visitor Center, Pirelli HangarBicocca, Milan, Italy
- Laure Prouvost. all behind, we'll go deeper, deep down and she will say;,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Am Main, Frankfurt, Germany
- Laure Prouvost: Into All That is Here, Red Brick Art Museum, Beijing, China

- 2015 DER ÖFFENTLICHKEIT – Von den Freuden Haus der Kunst: We would be floating away from the dirty past, Haus Der Kunst, Munich, Germany
- 2014 For Forgetting, New Museum, New York, NY, USA
- Laure Prouvost: While You Weren't Looking, Laboratorio Arte Alameda, Mexico City, Mexico
- 2013 Max Mara Art Prize for Women, Collezione Maramotti, Reggio Emilia, Italy; Whitechapel Gallery, London, UK
- Laure Prouvost / Adam Chodzko as part of Schwitters in Britain, Tate Britain, London, UK
- 2012 Why does Gregor never rings? shut your lips, somewhere under that bridge lies the hole truth... (THE WANDERER SEQUENCE 5), MOT International, London, UK; The Hepworth Wakefield, Wakefield, UK
- 2010 All These Things Think Link, Flat Time House, London, UK

SELECTED GROUP EXHIBITIONS

- 2021 Panorama 23 ... by the dream ..., Le Fresnoy - National Studio of Contemporary Arts, Tourcoing, France
- Beaufort21 Triennial (curated by Heidi Ballet), De Panne, Belgium
- Europalia Trains & Tracks, Brussels South Station, Brussels, Belgium
- 2020 Mascaras, Agora, Galeria Municipal do Porto, Porto, Portugal
- NIRIN 22nd Biennale of Sydney (curated by Brook Andrew), Sydney, Australia

AWARDS

- 2013 Turner Prize, Tate, London, UK
- 2011 Max Mara Prize for Women, Whitechapel Gallery, London, UK



에르메스 재단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정의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에르메스 재단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 기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르메스 재단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재단은 기술과 노하우의 전수, 창작활동 및 예술, 환경 보존, 사회연대의 영역에서, 내일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들을 후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공유지식을 개발하고, 공익을 위한 과정을 활성화하며, 인도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의 근본적인 취지를 반영합니다. 에르메스 재단은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올리비에 푸르니에가 재단 이사장을, 로랑 페쥬가 재단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FONDATIONENTREPRISEHERMES.ORG
#FondationHermes #에르메스재단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President: Olivier Fournier
Director: Laurent Pejoux
Head of Communications: Maxime Gasnier
Head of Visual Arts & Craftsmanship Projects: Julie Arnaud

HERMÈS KOREA LIMITED
Managing Director: Han Sung Hun
Communication Director: Kim Ju Youn
Exhibition Manager: Yum Hyejo
Communication Coordinator: Cho Soo Min



아틀리에 에르메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삶의 한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제안하는 아티스트의 창작 열정에 동참하며, 이들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현대미술을 위한 전시 공간입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국제 현대미술 현장과 보다 전문적이고 밀도 높은 교류 활동을 도모하며, 국내외 아티스트에게 높은 수준의 창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층 더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한국 현대미술 현장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는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현 예술계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의미 있는 미학적 비평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적극 수용하며, 장르의 구분 없이 모든 형태의 예술 창작 활동을 포용합니다.

2008년 에르메스 재단의 발족과 더불어 에르메스의 후원 활동은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현재 서울의 아틀리에 에르메스를 포함 브뤼셀과 도쿄에 위치한 전시 공간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매종 에르메스 도산 파크 B1F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5길 7
T. 02 3015 3248
F. 02 545 1224
관람 시간: 오전 11시-오후 7시
수요일 휴관

MAISONHERMESDOSANPARK.HERMES.COM
#AtelierHermes #아틀리에에르메스

ATELIER HERMÈS
Artistic Director: Ahn Soyeon
Graphic Designer: Shin Shin
Translator: Lee Soojin
Exhibition Photographer: Kim Sangtae

ATELIER HERM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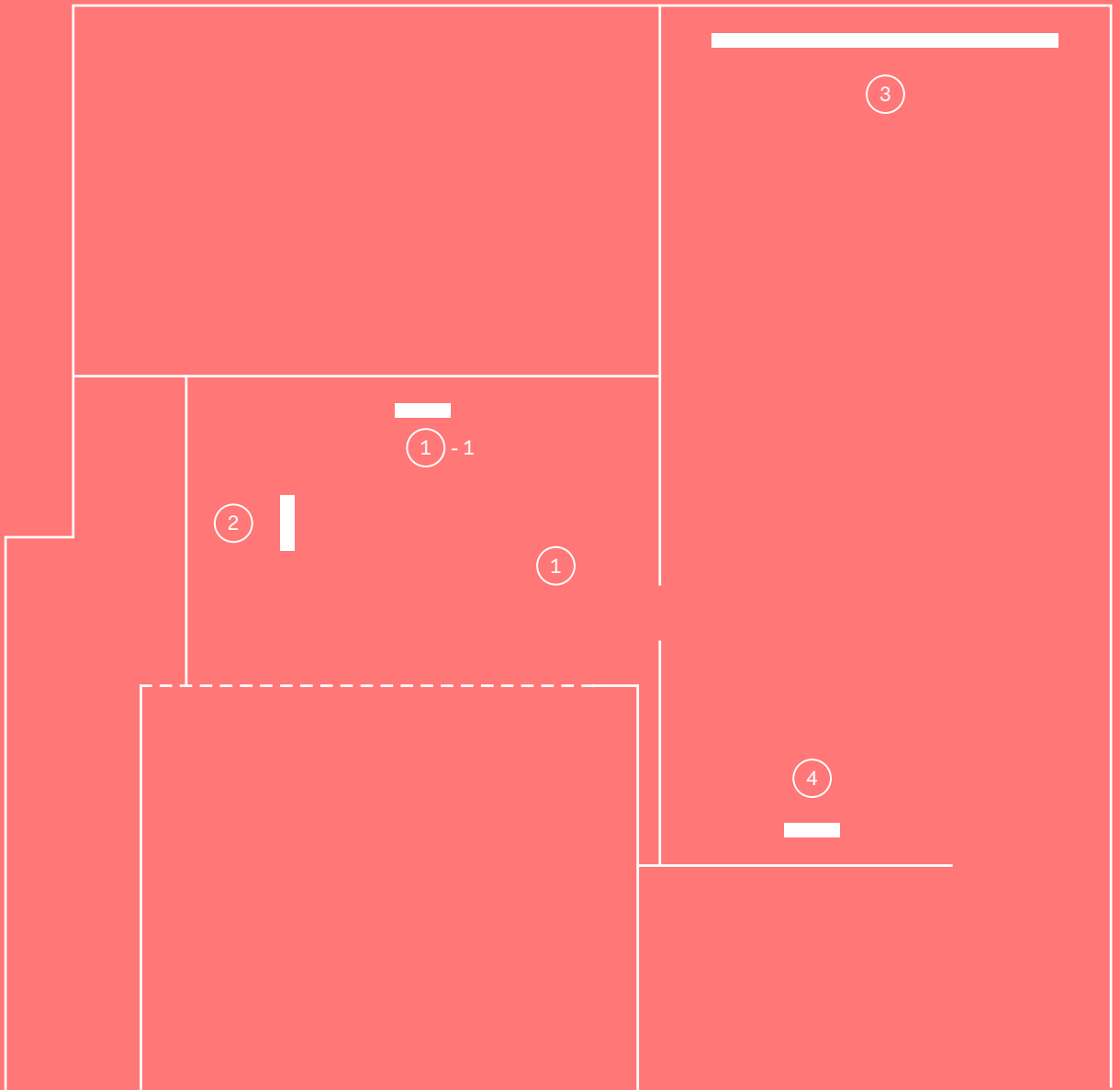
The Atelier Hermès is an exhibition space for contemporary art that supports the passion of artists who allude "Art as an engaging part of life," and presents their experimental and dynamic aspect of the creation.

The Atelier Hermès aims at establishing a dynamic and prosperous contemporary art scene in Korea through intensified exchanges wi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scenes and offering high standard of production environment to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artists.

The Atelier Hermès provides aesthetic criticism on current issues and relies on singular and critical value of contemporary art, embrac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contemporary art, emphasizes artistic creation in all form of expression and media.

With the commencement of the Fondation d'entreprise Hermès in 2008, Hermès had added a new dimension to its policy which has become the vehicle for the development of its patronage activity through the Atelier Hermès and other art spaces in Brussels (La Verrière) and Tokyo (Le Forum).

MASION HERMÈS DOSAN PARK
B1F., 7, Dosan-daero 45-gil,
Gangnam-gu, Seoul, Korea
T. +82 2 3015 3248
F. +82 2 545 1224
Opening hours: 11am-7pm
Closed on Wednesdays



- ① [아저씨의 여행사 가맹점, 심층 여행사, 설치](#)
[Uncle's Travel Agency Franchise, Deep Travel Ink.,](#)
 Installation, 2016 - ongoing
- ① - 1
[여행 정보광고, HD 비디오, 2분 37초](#)
[Travel Informercial, HD video, 2 minutes 37 seconds,](#)
 dimensions variable, 2016
- ② [방랑자 - 벙커/통신 시퀀스, HD 비디오, 11분 39초](#)
[The Wanderer - Bunker/Communication Sequence,](#)
 HD video, 11 minutes 39 seconds, dimensions
 variable, 2012
- ③ [신앙적으로 돈 버는 방법, HD 비디오, 8분 44초](#)
[How to Make Money Religiously, HD video,](#)
 8 minutes 44 seconds, dimensions variable, 2014
- ④ [올라가셨어야죠, 보드에 아크릴과 바니시](#)
[YOU SHOULD HAVE GONE UP, Acrylic and varnish](#)
 on board, 57.1 x 37.2 x 2 cm, 2019